‘性別空性’ 새 선사 모델 보여준 대행선사

박소진 교수, 한마음과학원 제4회 학술대회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썼던 대행 선사(1927~2012)가 보인 행보와 법문을 여성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박소진 신한대 교양교육원 교수는 9월 2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린 한마음과학원 제4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대행 선사의 젠더적/젠더초월적 특성과 젠더 관련 법문’ 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불교여성학의 선행 연구를 분석한 박 교수는 안옥선의 ‘성별공성(性別空性)’ 논의를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안옥선은 ‘성별공성’ 을 트랜스젠더리즘과 비교하고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성관념의 허구를 드러냈다. 즉, 불교의 ‘성별공성’ 은 “이분법에 기초한 성정체성과 성별규범에서부터 좀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행 선사는 ‘여성’ 이자 ‘비구니’ 로서의 외부 인식에 대해 젠더적이면서 젠더초월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주목했다. 이는 ‘성별공성’ 과도 연결된다.

이에 박 교수는 “외부인들은 대행 선사에게 사회문화적으로 부여되는 젠더적 특성을 부여하지만 선사는 젠더이분법적 틀의 어느 한쪽으로만 인식될 수 없다. 선사는 이를 뛰어넘는 젠더초월적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젠더/젠더초월적 특성은 불교의 ‘성별공성’ 개념과 관련해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행 선사의 젠더 관련 법문을 분석한 박 교수는 선사가 젠더이분법적 인식을 부정했음을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여성불성불론’, ‘변성성불론’ 에 근거한 질문과 언설에 대해 대행 선사는 깨달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고, 그러한 상(像)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비구와 비구니 사이의 차별적 위계 관계에 대해서 부처님 당시 인도의 상황 속에서 이뤄진 ‘시대적 방편’ 이었고 시대가 변하면 방편도 변해야 한다고도 설했다.

또한, 대행 선사는 여성, 비구니를 산하대지로 남성, 비구를 태양이나 하늘에 비유하면서 불이법에 근거한 남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교수는 “대행 선사를 여성이나 비구니라는 젠더이분법의 틀로 인식하려는 사람들의 시도에 ‘남녀 성품’ 의 평등을 강조한다”면서 “대행 선사의 비유는 젠더이분법으로 읽힐 수 있으나 법문의 핵심은 남녀가 둘이 아니게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평등을 강조한다. 이는 여성학의 평등관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제고할 수 있는 사상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대행 선사가 보여준 ‘젠더/젠더초월적’ 특성은 새로운 선사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한마음과학원은 9월 2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제4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제 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의 모습.

여성학적 관점으로 대행 선사 조명

“깨달으면 여자 · 남자 아니다” 강조

선사 보인 ‘젠더/젠더초월’적 특성

대승경전서 확인된 ‘성별공성’ 연결

비구 · 비구니 아우른 공동체 형성도

대행 사상 인접학문 접목 연구 발표

선원 사부대중 1000명 참석 ‘성황’

박 교수는 “독자적으로 깊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대중교화에 힘쓴 대행 선사는 비구 중심의 가부장적 계보 속의 선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대행 선사가 보여주는 젠더/젠더초월적 특성은 새로운 선사의 모델”이라며 “비구-비구니의 엄격한 분리 전통을 넘어서 비구 · 비구니를 아우르는 독특한 수행공동체를 형성한 점도 새로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행 선사의 사상 · 가르침과 종교학 · 심리학 · 자연과학 · 교육학 등을 접목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다.

비교종교학자 만프레드 후터(Manfred Hutter) 독일 본 대학 교수는 ‘물질 세계와 현대사회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서 받은 영감과 고찰’ 을 통해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했다. 특히 종교적 갈등에 대해 후터 교수는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은 종교가 발전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례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재영 서강대 교수는 ‘대행선사의 삶과 저술에 축적돼 있는 심리학적 통찰’ 을 통해 “대행 선사의 깨달음 경험 과정은 돈오적인 측면보다는 점진적 유형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점수적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선사의 깨달음 경험 연구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점수적 통찰을 심층심리학 연구와 연결해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스 욕 에플레(Hans-Jorg Epple) 독일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 의학박사는 ‘대행선사의 가르침과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상과 의학’ 을 통해 대행 선사가 강조한 ‘업(業)정보의 변환’ 을 심성의학에 연결 · 고찰했다.

‘인류학, 인류세 이상한 친족 만들기, 크툴루세 - 대행선사의 법문과의 연관성 탐구’ 를 발표한 마르시 미들브룩스(Marcie Middlebrooks) 타이완 국립 중산대학 교수는 인류학 개념인 ‘인류세’ 를 소개하고 이를 대행 선사의 법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폈다. 안정현 등 8명은 학교교육을 위한 주인공 관법 교수학습모형을 개발 · 제안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동국대에서 올해 하반기 박사학위를 받은 혜교 스님은 자신의 논문을 축약해 ‘오공의 한마음’ 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해 전국 · 해외 지원장 스님,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장, 권탄준 대행선연구원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에 앞서 열린 입재식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선사께서 과학원을 설립한 뜻은 불신을 잠재우고 마음공부에 믿음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면서 “선사께서 내려준 법문의 진수가 과학원 회원들의 마음 속에 녹아져 자양분이 되고 나무가 돼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열매가 다양한 꽃으로 만개하는 시절이 도래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화천 계성리사지서 최초 육각형 금당지 확인

화천군 · 강원고고硏 발굴 결과
北 금강산 정양사와 유사 구도

일반적으로 사찰의 중심이 되는 대웅전(금당)은 정방형을 모양을 한다. 하지만 육각형 금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발굴 결과 확인됐다. 특히 육각형 금당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확인되는 것이어서 학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화천군(군수 최문순)과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장 지현병)은 10월 1일 발굴현장에서 설명회를 열고 “화천 추정 계성리사지 유적 발굴조사에서 국내 최초로 육각형 모양의 건물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는 보물 제496호 화천 계성리 석등 정비사업의 하나로 시행됐으며, 중심 사역으로 확인된 구역에서는 정밀발굴조사가, 외곽 지역에는 시굴조사가 진행됐다.

조사의 최대 성과는 국내 절터에서 최초로 확인된 평면 육각형의 건물지의 발굴이다. 연구원 등에 따르면 고려 전기에 조성된 건물지는 가람배치 상으로 볼 때 본존불을 모신 금당으로 추정되는데, 육각형의 기단에 고맥이 초석(주춧돌)을 사용했다.



국내에서는 처음 확인된 육각형 금당지. 화천 계성리사지 발굴조사 중 확인됐다.

기단 한 변의 길이는 약 5.4~5.7m, 적심의 지름은 약 1.8~2.2m이며, 면적은 기단을 기준으로 약 88.2㎡이다. 이후 조선 시대에 가서 평면 방형으로 재건되었는데, 정면 3칸, 옆면 3칸으로 면적은 약 132.7㎡이다.

건물지 중앙에는 평면 육각형의 쪼갠 돌(할석)이 깔려 있어 불상의 대좌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육각형 모양의 법당지는 현재 북한 금강산 정양사에서도 확인되며, 정양사의 육각형 법당지(현 약사전) 중앙에도 석조본존불이 배치돼 비교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제3호 건물지 내에서 확인된 궐수문(고사리 모양 무늬)이 조각된 타원형의 석조화덕시설은 그 동안 국내에서 확인된 고려 시대 화덕시설 중에는 가장 화려하고 격조 높은 시설로 고려 시대 차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유구로 볼 수 있다.

계성사 창건은 고려 전기 문신 최사위(崔士威)의 묘지명에 계성사와 정양사의 창건에 각각 관여한 행적이 기록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계성사와 정양사 모두 육각형을 모형으로 해 법당 · 석탑 · 석등이 축조된 것을 감안하면 최사위가 두 사찰을 거의 같은 설계구도 속에서 대부분 건축물을 조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추정 계성리사지는 고려 전기에서 조선 후기까지 운영된 산지가람의 사찰로, 신라 말 고려 초의 일반적인 평지가람 배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며 “조사 결과, 중심 사역은 남북축선을 기준으로 중문지, 석탑지, 동 · 서 석등지, 금당 추정 육각형 건물지가 위치하는 1탑 1금당의 가람배치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변 시굴조사를 통해 부속건물터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세와 위상이 매우 컸던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사지가 북한 금강산의 정양사와 건축구조물에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남북의 공동연구 주제로서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금산사 전해지는 점찰신앙 살핀다

조계종 제17교본사 금산사(주지 성우)의 점찰신앙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정토학회(회장 김광식)와 금산사는 10월 18일 금산사 보제루에서 ‘금산사와 점찰신앙’ 을 주제로 제23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점찰신앙 전반에 대한 연구 논문과 금산사에서 계승되는 점찰신앙에 대해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동국대 前 총장 보광 스님의 ‘금산사 점찰신앙의 재현 필요성’ △박미선 대림대 외래교수의 ‘점찰법회 유래와 〈점찰선악업보경〉 구성’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금산사 점찰법회의 설행과 미륵신앙’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불교 점찰사상과 문화의 연관성’ △최현주 동국대 평생교육원 교수의 ‘불교 점찰사상의 보급을 위한 현대적 포교 프로그램’ △남원 영선사 주지 월공 스님의 ‘점찰법회 작법의 고증과 현대적 재현 방법’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GmSoft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서 울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12
02)3673-3442,764-2159
010-5264-3906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